

# 화순군, 귀농 시행착오 줄이는 현장 실습교육 추진

### 단계별 실습교육·멘토-멘티 일대일 약정 연수

###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수생 90% 영농 정착

화순군이 이주 초기 농업·농촌 경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귀농인을 지원하는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현장 실습교육을 통해 귀농 연수 기회를 제공해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한다.

현장 중심의 영농 기술, 품질 관리, 경영 마케팅 등 단계별 실습교육과 체험

활동을 위해 멘토(선도 농가)-멘티(연수생)가 일대일 약정을 맺고 연수를 진행한다.

군은 지난 12일 선도 농가와 귀농 연수생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 설명회와 귀농 연수 약정 체결식을 열었다.

귀농 연수생은 1개월에 20일, 5개월 동안 희망 작목의 재배 기술을 익히고 자가 영농 적용 실습을 하게 된다. 귀

농 연수생에게 월 최대 80만 원의 교육 훈련비가, 선도 농가에게는 월 40만 원의 교수 수당이 지급된다.

귀농 연수생의 주요 연수 작목은 완속도마도, 방울도마도, 블루베리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현장 실습 교육을 수료한 귀농 연수생 52명 중 90%가 화순에 정착했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현재 귀농귀촌 교육 이외에도 귀농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포장재 개선 사업, 농가 주택수리비 지원 사업, 소규모 농장 실증재배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의 신청자를 모집 중이니 귀농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귀농귀촌상담은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팀(061-379-5443, 5444)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박순철 기자

# 담양군, 현장 중심 세정 서비스 마을세무사 운영

담양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현장 중심의 세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

'마을세무사란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의 세금 고민해결을 위해 무료로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담양군은 김문용(담양), 한재욱(광주 북구), 백인준(광주 북구) 등 세무사 3명의 재능기부로 마을 세무사를 운영하고 있다.

군은 3월부터 봉산면에서 상담과 홍보를 시작해 '찾아가는 이동민원실'과 연계하여 운영되며, 코로나19 대응단계에 맞추어 이장회의 등 각종 회의를 활용하여 운영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제적 여건으로 전문적인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국제, 지방세 등 복잡하고 다양한 세금 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국제세와 지방세 등 세금과 관련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운영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군민이 마을 세무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 구례군, 목공예 기능인 양성교육 시작

### 5월 23일까지 72시간 구성

구례군은 목재문화와 목재산업 발전을 선도할 목공예 기능인 양성 교육을 지난 3월 4일 선별하여 교육을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목조주택 짓기' 양성교육은 매주 토요일반과 일요일반으로 나누어 총 2개반 12명을 모집했다. 모집 정원보다 많은 50명이 신청하여 4대 1 넘는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었으며, 공개 추첨을 통해 교육생을 선발했다.

교육 과정은 재료 선정, 쓰임, 구조의 기초부터 지붕·외부 벽체 마감 철 작업까지 단계별 맞춤형 교육으로 진

행된다.

이번 교육에는 청년부터 은퇴자, 귀농 귀촌인 등 남녀노소 고르게 관심을 보여 목재 교육의 높은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교육은 3월 6일부터 5월 23일까지 매주 토요일반과 일요일반으로 나눠 각각 12회 72시간으로 구례목재문화 체험장에서 이루어진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목재가 주는 안정감과 따뜻함을 배경으로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추진하여 많은 군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 장성군 "농기계 임대료 감면 한번 더"

장성군이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다시 한번 연장한다.

장성군은 작년 3월부터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업인에게 기종별로 주당 1일의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해왔다.

당초 군은 두 차례의 연장을 통해

올해 3월까지 임대료 감면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농가 경영난에 도움을 주기 위해 6월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바쁜 영농철에 부담없이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기동취재본부

# 나주시, 소상공인 위해 '선(先)결제 캠페인' 전개

### 착한 소비문화 확산 도모...강인규 시장 첫 주자로

나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선(先)결제 캠페인' 확산에 나섰다.

선 결제 캠페인은 공공 주도의 착한 소비자 운동의 일환으로 업무추진비 등을 활용해 지역 소상공인 매장에 일정 금액을 선 결제하고 추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이다.

지난해부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동참 물결이 일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 급감에 휘청대는 소상공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나주시는 17일 강인규 시장의 선 결제를 시작으로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 민·관이 함께하는 '선 결제 캠페인 릴레이 챌린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챌린지 참여 방법은 지역 소상공인 매장에서 선 결제 후 인증사진과 홍보 슬로건 문구인 '착한 선 결제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됩니다(나주시청은 모든 부서가 참여합니다)'를



체 등 민·관이 함께하는 '선 결제 캠페인 릴레이 챌린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챌린지 참여 방법은 지역 소상공인 매장에서 선 결제 후 인증사진과 홍보 슬로건 문구인 '착한 선 결제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됩니다(나주시청은 모든 부서가 참여합니다)'를

SNS, 시청 누리집(선 결제 릴레이 챌린지 창구)에 게시하고 다음 주자 3명을 지명하면 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이번 선 결제 캠페인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역사회 상생과 연대를 힘으로 키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전해 줄 착한 소비자 운동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기관·사회단체 등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동신대학교, 한국전력공사 나주시지사, 농협중앙회 나주시지부를 다음 캠페인 주자로 지목했다.

기동취재본부

# 곡성군, 천혜향 재배기술 교육 실시



곡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

16일 고품질 천혜향 생산을 위한 재배

기술 이론 교육 및 현장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현성의 만감류 농업마이스터를 초빙해 토양 관리, 천혜향 월별 재배관리 기술, 정식 및 전정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론 교육이 끝난 후에는 지역 내 천혜향 재배지를 방문해 현장 컨설팅을 진행했다.

2019년에 지역활력화작목기반 조성 과수분야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사업비 1억을 배정받아 지난해 천혜향 0.7ha를 조성했다.

올해도 사업비를 배정받아 천혜향 0.7ha 단지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곡성=양혜영 기자

# 담양군, 귀농·귀촌인 안정적 농촌 정착 돕다

담양군은 귀농귀촌희망자와 귀농인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영농기술 지원을 위한 영농기초기술교육(영농기초반)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 참석자 간 거리 확보,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점검, 소독 실시 등 충분한 방역 조치를 병행하며 진행한다.

교육은 지난 11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다음 달 29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진행되며, 지역 선도농가 사례 소개부터 귀농을 준비하기 위한 목표설정, 작목선정기법, 관로개척과 판매방법 등에 대해 교육이 계획돼 있다.

군 관계자는 "농촌적응부터 실습교육까지 단계별로 진행해 초기 정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이번 교육이 재미 있고 활기찬 농촌생활의 바탕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 땅에서 나는 음식 중에 토란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

허균 <도문대작>

